

신세대 대학생의 사회의식 조사 연구

김진화·최창욱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A Study on the New Generation Undergraduate Students' Perceptions toward the Society

Jin Hwa Kim and Chang Wook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ocial perceptions toward the society from the new generation undergraduate student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the general backgrounds to respondents, the satisfaction on their living domain, the characteristics of new generation students, the attitude for the life and the occupation, the perspectives of life achievement, the viewpoint of the society, and the attitude toward the religion, the selected self, and 7 items for the social common opinion. The validity and the reliability of questionnaire were accepted to considerable extent through pre-test.

The data obtained from the students of the selected universities were analyzed by SPSSWIN 6.0, and the statistical techniques used for this study were ANOVA, Crosstabs(χ^2 test), t-test, frequencies, and percentag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new generation undergraduate students had the higher satisfaction on the family and the relationship of friends than on the campus life, the self, and the society. 2) There was some negative image on the old generations and the new generations by the respondents. 3) Their objectives of the life were not obtaining the reputation and the higher positions but get the economic wealth for enjoying their life.

I. 서론

신세대라는 말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용되는 유사한 용어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신세대라는 용어를 지칭하기 시작하는 연령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그 시기가 약간씩 다르다.

우리 나라에서 신세대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사회의 물질적 풍요가 외래문화와 접촉되는 과정에서 청소년기의 특성이 기존의 세대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던

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앞으로 10~20년 후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갈栋梁(棟梁)인 신세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려는 기성세대들의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세대를 이해하는 일은 급변하는 사회 조류를 파악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획득하는 일과 그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대학생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신세대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도 아닐뿐더러 신세대 문제는 남의 이야기도 아니다. 따라서 대학에서도 신세대 대학

생의 가치관과 형태를 미리 감지하고, 생활지도 대책을 논하며, 대학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를 공고히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김헌수, 1995:87).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서 본 연구의 의도는 미래의 정보화시대의 주역이 될 신세대 대학생의 사회의식을 조사·분석하여 신세대 대학생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사회상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본 연구의 모집단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1970년대 출생자이였으며, 표집은 유층표집 방법을 통해 지역별 및 대학별로 총 460명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 소재 대학 80명, 경기도 지역 소재 대학 60명, 대전·충청지역 소재 대학 80명, 강원지역 소재 대학 80명, 호남지역 소재 대학 80명, 영남지역 소재 대학 80명이였다. 이들 중에서 회수된 것은 382매이였으며,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것은 응답이 불충실한 27개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55매이였다.

신세대 대학생들의 사회의식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설문지의 조사 항목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 사항 6개 문항(연령, 성별, 출생 년도, 전공, 주 성장지역, 종교), 생활 영역에 대한 만족도 5개 문항(가정, 학교, 친구, 사회, 자기 자신), 어른 및 신세대 대학생의 특성 2문항, 신세대 대학생의 인생관 2문항, 직업관 및 성공관 2문항, 사회관 2문항, 결혼관 및 종교관 2문항, 그리고 사회적 통념에 대한 7개 문항이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정리 작업을 거쳐 최종 355매가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자료 분석은 사회과학통계패키지 SPSSWIN 6.0을 이용하여 빈도 및 백분율, 비모수 검정(χ^2 검정), 그리고 평균 점수 비교를 위해 t-Test와 ANOVA(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1%와 5%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II. 관련 문헌 및 이론 고찰

1. 신세대 대학생의 개념 규정

신세대 대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의미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세대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신세대라는 용어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왔다. 즉, 인류 역사의 특정 시기와 많은 국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젊은 세대를 지칭하여 일컬어지고 있는 '신세대'라는 용어는 세계의 여타 국가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X 세대(New Generation)', 프랑스 인들은 '레 드부술(불평불만주의자)', 일본에서는 '신인류' 등이 그것이다(김헌수, 1995:87).

미국인들에게 New Generation이라는 말은 1960년대 반전 운동의 주축이 되었던 대학생 세대, 혹은 긴머리에 비틀즈 음악을 즐겼던 Baby Boom세대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신세대 용어는 1970년대 초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있는 계층으로 회자되는 듯하다가 이들이 기성세대 화하고 다시 태어난 세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여 사회계층 구조면에서 영향력이 감소하고 그 사용 빈도가 점차 소멸되어 갔다. 일본에서는 경제적 풍요를 배경으로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를 대표하는 새로운 세대가 사회로 진출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하여 기성세대와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1985년경부터 '신인류'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신인류라는 용어는 異星人, 外界人, 어느 날 홀연히 나타난 새로운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 말 속에는 구인류와 상호교류나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신세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세계적으로 탈 이념의 시대가 도래하고 우리 사회도 정치적 대결이 사라진 후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문화적 소비 욕구가 새롭게

분출되어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은우(1994)는 1987년 이후 서구, 왜색문화, 개인주의, 쾌락주의가 만연되면서 상품 소비 목적이 소비욕구의 일차적인 만족을 벗어나 정신적 소비와 서비스 소비로 바뀌는 과정에서 대중 영상 매체의 조장이 이러한 신세대를 형성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임성희(1994)는 대표적인 소비문화 지역에서 신세대 문화가 기성세대와 차별화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욕구와 하층계급으로부터 자신의 문화소비를 차별화 하고자 하는 중산계급의 욕구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송재희 외 4인(1993)은 1980년대 개성과 몰개성의 공존이 바로 권위에 대한 도전과 개성에 대한 강렬한 지양을 심어주었다고 주장한다. 즉, 여기에서 반권위적인 개성이란 극도로 권위적이며 모순에 가득한 10대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 바로 신세대의 모태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들을 지칭하여 “I(아이) 세대”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이러한 용어의 유래는 신세대들의 특성, 즉 “Instinct(즉각반응)”, “Image(매스컴 노출)”, “Independence(탈 권위)”, “Individualism(개인주의)”의 영어 첫 자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청소년층을 신세대로 규정하기 시작했던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된 정확한 시기를 규정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 사회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기 시작한 청소년층들을 지칭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들은 196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부터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성장기를 거쳐, 1980년 후반 이후에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세대 대학생을 앞에서 규정한 조건에 만족하면서 1970년대 이후 출생자로서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자를 신세대 대학생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고찰

그 동안 신세대에 관한 연구는 주로 1990년 초에 본격적으로 수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신세대를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대학에 입학한 자를 규정하고 있어 신세대에 대한 관심이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와 맞물려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던 것이다.

신세대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 한국일보사에서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상·하)”라는 책을 펴낸면서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 삼성복지재단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발표한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라는 논문은 10대 청소년들의 의식 구조가 시대에 따라 최근들어 그 변화 양상이 물질적 풍요와 대중 매체의 급격한 보급으로 기존의 10대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밝힌 바 있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인사정책에 신세대들의 특징을 반영하여 그들이 조직 내에서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1993년 삼성이 “신세대 가치관 변화 인사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었다. 이제까지 언급된 신세대 관련 연구들은 주로 학자들보다는 사회단체들에 의해 수행되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신세대에 대한 연구는 1994년 창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주최로 열린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심포지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던 몇 편의 논문은 신세대 중 대학생에 대해 주 관심을 표명하며, 이들의 특성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김현수(1995)는 “신세대와 대학생활”이라는 주제에서 신세대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의 특성을 밝힌 바 있었으며, 도정일(1995)은 “신세대 문화의 배경과 성격”이라는 주제에서 신세대의 문화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논의한 바 있다. 또한 엄혁(1995)은 “신세대의 삶과 의식구조”라는 주제에서 신세대 대학생들의 의식구조를 몇 가지의 준거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는 신세대 대학생을 1970년대 출생하고 현재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규정하고, 조사 대상자 중 최종 분석에 활용된 인원은 총 355명으로 이들은 지역적으로 서울(40명), 경기(52명), 대전·충남(50명), 대구·경북(30명), 전북(40명), 광주·전남(30명), 충북(30명), 부산·경남(33명) 등 전국적인 분포를

보였다. 이들의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와 같았다. 성별로는 남학생 173명, 여학생 182명, 학년별로는 1학년 77명, 2학년 136명, 3학년 73명, 4학년 69명, 종교별로는 기독교 123명, 천주교 38명, 불교 36명, 기타 4명, 무종교 151명, 연령별로는 24세 이상(1970년~1974년 출생)이 90명, 23세 이하(1975년~1979년 출생)가 265명이었으며, 이들의 주요 성장지역을 보면, 서울과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 161명, 중도시 57명, 소도시 60명, 농어촌 77명이었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특성	빈도	백분율	구분	특성	빈도	백분율
성별	남학생	173	48.7	연령	70~74	90	25.4
	여학생	182	51.3		74~79	265	74.6
학년	1학년	77	21.7	성장지역	대도시	161	45.4
	2학년	136	38.3		중도시	57	16.1
	3학년	73	20.6		소도시	60	16.9
	4학년	69	19.4		농어촌	77	21.7
종교	기독교	123	35.5	생활준	상	57	16.0
	천주교	38	10.7		중	268	75.5
	불교	36	10.1		하	30	8.5
	기타	4	1.1	계		355	100.0
	무종교	151	42.5				

2. 생활영역 및 사회에 대한 만족도

신세대 대학생들이 전반적인 생활영역(가정생활, 학교생활, 친구관계, 사회, 자기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한 결과 <표 2>과 같았다. 만족하는 생활영역과 불만족하는 영역이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가정생활(67.0%)과 친구관계(69.0)에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는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학교생활과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으로

각각 32.4%와 36.1%를 보였다. 반면에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보다는 불만족하는 경향이 63.9%로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편, 조사 대상자들의 사회에 대한 만족 정도는 만족하는 것보다 불만족하는 경우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성별과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사회에 대해 남학생들(69.9%)이 여학생들(58.2%)보다 불만족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

〈표 2〉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도

생활영역	만족한다		그저그렇다		불만족한다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가정생활	238	67.0	79	22.3	38	10.7	355	100.0
학교생활	115	32.4	158	44.5	82	23.1	355	100.0
친구관계	245	69.0	90	25.4	20	5.6	355	100.0
사 회	13	3.7	115	32.4	227	63.9	355	100.0
자 신	128	36.1	115	32.4	112	31.5	355	100.0

〈표 3〉 사회에 대한 만족정도

구 분	만족한다		그저그렇다		불만족한다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성 별	남 학생	7	4.0	45	26.0	121	69.9	173	48.7
	여 학생	6	3.3	70	38.5	106	58.2	182	51.3
학 년	1 학 년	2	2.6	25	32.5	50	64.9	77	21.7
	2 학 년	3	2.2	33	24.3	100	73.5	136	38.3
	3 학 년	2	2.7	36	49.3	35	47.9	73	20.6
	4 학 년	6	8.7	21	30.4	42	60.9	69	19.4
계		13	3.7	115	32.4	227	63.9	355	100.0

성별: $\chi^2 = 6.28$ $P = 0.43$ 학년별: $\chi^2 = 20.27$ $P = 0.002$

학년별로 살펴보면, 사회에 가장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2학년으로 73.5%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1학년 64.9%, 4학년 60.9%, 3학년 47.9% 등의 순으로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향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신세대 대학생들이 요즘 기성세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말들 중에서 동의하는 것 2가지를 선정하도록 하여 이를 조사·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았다.

신세대 대학생들은 요즘 어른들에 대해 ‘언행불일치’와 ‘권위적’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근면함’, ‘희생적인’, ‘검소함’ 등과 같은 긍정적인 견해는 상대적으로

3. 기성세대 및 신세대에 대한 인식

〈표 4〉 신세대 대학생의 어른에 대한 인식

(단위: 빈도)

구 분	권위적임	근 면 함	희생적임	참울성 없음	검 소 함	언행불일치	사치스럽
성 별	남 학생	105	30	25	16	16	34
	여 학생	132	18	21	19	6	22
계	237	48	46	35	22	265	56

참고: 다중선택 문항.

로 낮은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신세대 대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말들 중에서 동의하는 것 2가지를 선정하도록 하여 이를 조사·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았다.

신세대 대학생들은 '이기적임'이라는 특성에 가장 많이 동의하였으며, 다음으로 '사치스러움', '버릇없음', '솔직함', '참을성 없음', '나약함', '게으름', '언행불일치'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5>

신세대 대학생에 대한 인식

(단위: 빈도)

구 분		버릇 없음	이기적임	솔직함	참을성 없음	사치스러움	언행불일치	게으름	나약함
성 별	남 학생	61	82	41	51	48	12	18	33
	여 학생	44	101	63	49	73	5	9	20
계		105	183	104	100	121	17	27	53

참고: 다중선택 문항

4. 신세대 대학생의 인생관

신세대 대학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구할 생활 형태 중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를 조사·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신세대 대학생들이 앞으로 추구할 생활 형태는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63.9%)'에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13.5%)', '공부하여 명예를 얻

는 것(9.6%)', '정직하게 사는 것(8.5%)', '국가 사회에 봉사하는 것(4.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반면에 '공부하여 명예를 얻는 것'과 '국가·사회에 봉사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의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

<표 6>

신세대 대학생의 추구할 생활 형태에 대한 인식

구 분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공부하여 명예를 얻는 것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국가·사회에 봉사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 별	남 학생	24	13.9	13	7.5	111	64.2	6	3.5	19	11.0	173	48.7
	여 학생	24	13.2	21	11.5	116	63.7	10	5.5	11	6.0	182	51.3
학 년	1 학년	8	10.4	9	11.7	49	63.6	5	6.5	6	7.8	77	21.7
	2 학년	25	18.4	11	8.1	85	62.5	3	2.2	12	8.8	136	38.3
	3 학년	7	9.6	10	13.7	47	64.4	4	5.5	5	6.8	73	20.6
	4 학년	8	11.6	4	5.8	46	66.7	4	5.8	7	10.1	69	19.4
계		48	13.5	34	9.6	227	63.9	16	4.5	30	8.5	355	100.0

성별: $\chi^2 = 4.90$ P = 0.30 NS 학년별: $\chi^2 = 10.28$ P = 0.59 NS

학년별로 살펴보면,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과반수 이상의 경향을 보였으며, 이들 중에서 4학년들이 가장 높은 경향(66.7%)을 보였다. '공부하여 명예를 얻는 것'에는 3학년들이 가장 높은 경향(13.7%)을 보였으며,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에는 2학년들이 가장 높은 경

향(18.4%)을 보였고, '정직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4학년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

한편, 신세대 대학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질문하여 조사·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았다.

<표 7> 신세대 대학생의 인생 목표에 대한 인식

구분	경제적 풍요		인격도야		명예/지위 획득		사회봉사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학생	68	39.3	55	31.8	31	17.9	19	11.0	173	48.7
	여학생	72	39.6	68	37.4	24	13.2	18	9.9	182	51.3
학년	1학년	28	36.4	30	39.0	9	11.7	10	13.0	77	21.7
	2학년	62	45.6	36	26.5	29	21.3	9	6.6	136	38.3
	3학년	22	30.1	33	45.2	10	13.7	8	11.0	73	20.6
	4학년	28	40.6	24	34.8	7	10.1	10	14.5	69	19.4
계	140	39.4	123	34.6	55	15.5	37	10.4	355	100.0	

성별: $\chi^2 = 2.18$ P = 0.53 NS 학년별: $\chi^2 = 17.12$ P = 0.047

신세대 대학생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는 '경제적 풍요(39.4%)'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인격도야(34.6%)', '명예 및 지위 획득(5.5%)', '사회봉사(10.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풍요'와 '인격도야'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이 각각 39.6%와 37.4%로 남학생 39.3%와 31.8%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고, 반면에 '명예획득'과 '사회봉사'에 대해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

학년별로 살펴 보면, '경제적 풍요'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2학년이 45.6%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4학년(40.6%), 1학년(36.4%), 3학년(30.1%) 순으로 나타났다. '인

격도야'에 대해서는 3학년이 45.2%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1학년(39.0%), 4학년(34.8%), 2학년(2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신세대 대학생의 직업관 및 성공관

1) 직업선택 기준에 대한 인식

신세대 대학생들의 직업관이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이 미래에 직업을 선택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조사·분석한 결과 <표 8>와 같았다.

신세대 대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할 기준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인 것은 '자신의 적성'으로 47.9%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신의 능력발휘(31.5%)',

<표 8> 신세대 대학생의 직업선택 기준

구분		명분/지위		실질적 경제 보상		자신의 능력 발휘		자신의 적성		기 타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학생	1	0.6	31	17.9	59	34.1	74	42.8	8	4.6	173	48.7
	여학생	4	2.2	25	13.7	53	29.1	96	52.7	4	2.2	182	51.3
학년	1학년	0	0.0	10	13.0	19	24.7	46	59.7	2	2.6	77	21.7
	2학년	1	0.7	27	19.9	47	34.6	56	41.2	5	3.7	136	38.3
	3학년	3	4.1	8	11.0	25	34.2	36	49.3	1	1.4	73	20.6
	4학년	1	1.4	11	15.9	21	30.4	32	46.4	4	5.8	69	19.4
계		5	1.4	56	15.8	112	31.5	170	47.9	12	3.4	355	100.0

성별: $\chi^2 = 6.72$ P = 0.15 NS 학년별: $\chi^2 = 15.77$ P = 0.20 NS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15.8%)’, 지위 및 명분(1.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자신의 능력발휘’와 ‘실질적 경제적 보상’을 직업 선택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자신의 적성’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자신의 적성’을 직업선택 기준으로 삼는 경우 1학년(59.7%)으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3학년(49.3

%), 4학년(46.4%), 2학년(41.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

2) 성공 요인에 대한 인식

신세대 대학생들의 성공관이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요인이 무엇인가를 다중 선택 문항 형식으로 물어본 결과 <표 9>와 같았다.

신세대 대학생들은 성공요인에 대해 ‘능력’을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노력, 인품, 정신력, 인맥, 학력, 재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성공 요인에 대한 인식

(단위: 빈도)

구분	능력	노력	체력	정신력	가문	학력	인품	재력	행운	인맥	
성별	남학생	117	90	9	29	0	16	34	2	20	29
	여학생	132	96	5	27	2	20	32	10	24	16
학년별	1학년	51	43	2	11	1	9	16	2	14	5
	2학년	95	74	6	14	0	17	21	1	21	21
	3학년	56	39	1	12	1	6	17	6	2	8
	4학년	47	30	4	19	0	6	12	5	7	11
계		249	186	14	56	2	36	66	12	44	45

참고: 다중선택 문항

6. 신세대 대학생의 사회관

1) 신세대 대학생의 시국관

신세대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국가 현안 중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분석한 결과 <표 10>와 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은 국가 현안 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항목에 39.7%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회생(33.2), 민주주의 정착(14.1%), 과소비 근절(6.8%), 통일국가 이룩(5.4%), 국가 안보(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국가 현안

구분		경제회생		국가안보		민주주의정착		통일국가이룩		부정부패척결		과소비근절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학생	56	32.4	3	1.7	29	16.8	12	6.9	63	36.4	10	5.8	173	48.7
	여학생	62	34.1	3	1.6	21	11.5	4	2.2	78	42.9	14	7.7	182	51.3
학년	1학년	25	32.5	0	0.0	10	13.0	0	0.0	36	46.8	6	7.8	77	21.7
	2학년	46	33.8	3	2.2	16	11.8	8	5.9	53	39.0	10	7.4	136	38.3
	3학년	22	30.1	3	4.1	15	20.5	3	4.1	24	32.9	6	8.2	73	20.6
	4학년	25	36.2	0	0.0	9	13.0	5	7.2	28	40.6	2	2.9	69	19.4
계		118	33.2	6	1.7	50	14.1	16	4.5	141	39.7	24	6.8	355	100.0

성별: $\chi^2 = 7.62$ P = 0.18 NS 학년별: $\chi^2 = 17.45$ P = 0.29 NS

성별로 살펴보면,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 남학생(36.4%)보다는 여학생들의 응답(42.9%)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경제회생'에 대해서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최대 현안으로 인식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 1학년생들이 반응이 46.8%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4학년(40.6%), 2학년(39.0%), 3학년(3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회생'에 대해서는 4학년생들의 관심이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학년, 1학년, 3학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

2) 국가 장래에 대한 인식

신세대 대학생들이 국가 장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조사·분석한 결과 <표 11>와 같이 나타났다.

신세대 대학생들은 국가 장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긍정적인면서 중간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이 매우 밝다'에 응답한 경우는 2.8%에 불과하지만, '전망이 밝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9.9%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에 응답한 경우는 40.0%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국가 장래에 대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밝다는 견해에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장래가 밝지 않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의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국가의 장래에 긍정적으

<표 11>

국가 장래에 대한 인식

구분		전망 매우 밝음		전망 밝음		보통이다		전망 밝지 않음		전망 매우 불투명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학생	7	4.0	64	37.0	55	31.8	44	25.4	3	1.7	173	48.7
	여학생	3	1.6	42	23.1	87	47.8	49	26.9	1	0.5	182	51.3
학년	1학년	1	1.3	13	16.9	40	51.9	23	29.9	0	0.0	77	21.7
	2학년	5	3.7	36	26.5	56	41.2	36	26.5	3	2.2	136	38.3
	3학년	1	1.4	26	35.6	33	45.2	12	16.4	1	1.4	73	20.6
	4학년	3	4.3	31	44.9	13	18.8	22	31.9	0	0.0	69	19.4
계		10	2.8	106	29.9	142	40.0	93	26.2	4	1.1	355	100.0

성별: $\chi^2 = 7.62$ $P = 0.006$ 학년별: $\chi^2 = 17.45$ $P = 0.001$

로 응답한 경향은 4학년이 44.9%로 여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3학년(35.5%), 2학년(26.5%), 1학년(16.9%) 등의 순서로 나타나 고학년일수록 국가 장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7. 사회적 통념에 대한 인식

1) 사회적 통념 1에 대한 인식

사회적 통념 1은 “정경유착의 부정부패는 결코 일소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전직 통치자가 구속되는 등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정경유착형 부정부패에

대한 것으로 신세대 대학생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조사·분석한 결과 <표 12>와 같았다.

‘정경유착의 부정부패는 결코 일소될 수 없다’에 동의하는 경우가 68.7%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17.7%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 보면, 동의하는 경우 남학생의 응답비율이 69.9%로 여학생의 응답비율 67.6% 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신세대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의 해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12>

사회적 통념 1에 대한 분석 결과

구분		동 의 함		그저 그렇다		동의하지 않음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남학생	121	69.9	19	11.0	33	19.1	173	48.7
	여학생	123	67.6	29	15.9	30	16.5	182	51.3
계		244	68.7	48	13.5	63	17.7	355	100.0

성별: $\chi^2 = 2.01$ $P = 0.37$ NS

2) 사회적 통념 2에 대한 인식

사회적 통념 2은 “스스로 번 돈은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과소비의 한 형태에 대해 신세대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파악한 결과 <표 13>와 같이 나타났다.

“스스로 번 돈은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라는 사회적 통념 2에 대해 신세대 대학생들은 ‘동의’ 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응답비율(43.1%)을 보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38.9%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 보면, ‘동의’ 하는 경우 여학생들의 비율(43.4%)이 남학생들의 비율에 비해 높은 경

<표 13> 사회적 통념 2에 대한 인식

구 분		동 의 함		그저 그렇다		동의하지 않음		계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학생	74	42.8	29	16.8	70	40.5	173	48.7
	여 학생	79	43.4	35	19.2	68	37.4	182	51.3
계		153	43.1	64	18.0	138	38.9	355	100.0

성별: $\chi^2 = 0.53$ P = 0.77 NS

향을 나타냈으나 이러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

불과하였다. 학년별로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응답비율이 거의 비슷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

3) 사회적 통념 3에 대한 인식

사회적 통념 3는 “살아가는 데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풍토에 대해 신세대 대학생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조사·분석한 결과 <표 14>와 같았다.

‘살아가는 데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사회적 통념에 대해 신세대 대학생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경우의 응답비율이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의하는 경우의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15.8%에

4) 사회적 통념 4에 대한 인식

사회적 통념 4는 “손해를 보면서 남을 도울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으로 최근 우리 사회의 각박한 인심을 탓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신세대 대학생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조사·분석한 결과 <표 15>와 같았다.

“손해를 보면서 남을 도울 필요는 없다”라는 사회적 통념에 대해 신세대 대학생들의 응답 비율은 ‘동의하지 않는다’가 52.7%로 과반수

<표 14> 사회적 통념 3에 대한 인식

구 분		동 의 함		그저 그렇다		동의하지 않음		계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학생	33	19.1	34	19.7	106	61.3	173	48.7
	여 학생	23	12.6	47	25.8	112	61.5	182	51.3
계		56	15.8	81	22.8	218	61.4	355	100.0

성별: $\chi^2 = 3.81$ P = 0.15 NS

<표 15> 사회적 통념 4에 대한 인식

구 분		동 의 함		그저 그렇다		동의하지 않음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성 별	남 학생	38	22.0	39	22.5	96	55.5	173	48.7
	여 학생	44	24.2	47	25.8	91	50.0	182	51.3
계		82	23.1	86	24.2	187	52.7	355	100.0

성별: $\chi^2 = 1.09$ P = 0.58 NS

이상의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동의한다'는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23.1%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동의하지 않는다'에 남학생의 응답비율이 55.5%로 여학생의 응답 비율 50.0%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

5) 사회적 통념 5에 대한 인식

사회적 통념 5는 "법대로 살면 손해보기 마련이다"라는 내용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되어 온 일상적인 생각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일상적인 통념으로 통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신세대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분석한 결과 <표 16>와 같았다.

"법대로 살면 손해보기 마련이다"라는 사회적 통념에 대해 신세대 대학생들은 '그저 그렇다'라는 경우가 39.2%로 미온적인 응답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의하는 경우와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그저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과 '동의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동의한다'라는 응답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16> 사회적 통념 5에 대한 인식

구 분		동 의 함		그저 그렇다		동의하지 않음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성 별	남 학생	63	36.4	59	34.1	51	29.5	173	48.7
	여 학생	44	24.2	80	44.0	58	31.9	182	51.3
계		107	30.1	139	39.2	109	30.7	355	100.0

성별: $\chi^2 = 6.77$ P = 0.034

6) 사회적 통념 6에 대한 인식

사회적 통념 6은 "우리 사회는 권력이나 돈으로 안되는 일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편법주의에 대해 신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조사·분석한 결과 <표 17>와 같이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권력이나 돈으로 안되는 일이

없다"라는 사회적 통념에 대해 신세대 대학생들은 '동의한다'라는 경우에 응답한 경우가 과반수가 넘는 54.6%로 나타났고,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7.5%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동의한다'는 경우에 대해 여학생의 응답비율이 56.6%로 남학생들의 응답 비율 52.6%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

<표 17> 사회적 통념 6에 대한 인식

구 분		동 의 함		그저 그렇다		동의하지 않음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성 별	남 학생	91	52.6	30	17.3	52	30.1	173	48.7
	여 학생	103	56.6	25	13.7	54	29.7	182	51.3
계		194	54.6	55	15.5	106	27.5	355	100.0

성별: $\chi^2 = 1.01$ P = 0.60 NS

한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

7) 사회적 통념 7에 대한 인식

사회적 통념 7은 “우리 사회는 좋은 대

학을 나와야 사람 행세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에 지나칠 정도로 만연된 학력주의에 대해 신세대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분석한 결과 <표 18>와 같았다.

<표 18> 사회적 통념 7에 대한 인식

구 분		동 의 함		그저 그렇다		동의하지 않음		계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성 별	남 학생	101	58.4	30	17.3	42	24.3	173	48.7
	여 학생	103	56.6	35	19.2	44	24.2	182	51.3
계		204	57.5	65	18.3	86	24.2	355	100.0

성별: $\chi^2 = 0.22$ P = 0.89 NS

“우리 사회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사람 행세를 할 수 있다”라는 지나친 학력주의에 대해 신세대 대학생들은 ‘동의한다’의 경우에 57.5%가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의 경우에 24.2%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동의한다’의 경우에 남학생들의 비율이 여학생의 응답비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

V. 결 론

이상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신세대 대학생들의 자아 및 사회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1) 신세대 대학생들이 자신의 생활 영역 중

에서 가정과 친구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만족 정도를 나타냈고, 학교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 정도는 중간 수준 정도로 나타난 반면에 사회 전반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한 정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신세대 대학생들이 성장하는데 기성세대들이 건전한 토대를 마련해 주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세대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기성세대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였다. 즉, 신세대 대학생들은 기성세대에 대해 ‘언행불일치’와 ‘권위적’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주로 가지고 있었으며, 반면에 ‘근면함’, ‘희생적인’, ‘검소함’ 등과 같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성세대를 바라보지는 않고 있었다.

3) 신세대 대학생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기적임'이라는 특성이 가장 일반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정적인 시각, 즉 '사치스러움', '버릇없음', '솔직함', '참을성 없음', '나약함', '게으름', '언행불일치'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4) 신세대 대학생의 인생관은 명예나 지위보다는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 인생의 목표를 경제적 풍요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신세대 대학생들이 생활의 형태와 방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니 만큼 신세대 대학생들이 보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인생관과 생활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신세대 대학생의 직업관은 그들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할 기준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신세대 대학생들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절대다수가 자신의 적성과 자신의 능력발휘를 핵심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성공관은 노력, 인품, 정신력, 인맥, 학력, 재력 보다는 '능력'을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신세대 대학생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현안은 '부정부패 척결'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구조적이고 사회병리적인 현상을 타파하는 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적으로 경제회생과 파소비근절, 그리고 통일 국가 이룩과 국가 안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을 보인 것은 내치의 건전함이 국

가의 장래를 밝게 한다는 견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7) 신세대 대학생들은 기성세대에 만연된 일곱 가지의 사회적 통념들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통념들이 신세대 대학생들에게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성세대들의 노력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VI. 참고 문헌

1. 김향중. 대학생의 여가선용지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대학생활연구 제 1권. 1992.
2. 김현수. 신세대와 대학생, 창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5.
3. 도정일. 신세대 문화의 배경과 성격, 창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5.
4. 삼성. 신세대 가치관 변화와 인사정책방향, 삼성주식회사. 1993.
5. 삼성복지재단.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 서울: 중앙일보사. 1993.
6. 엄 혁. 신세대의 삶과 의식구조, 창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5.
7. 정득진. 농촌주민의 가치수준과 도덕성 수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5.
8. 한국일보사.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상·하). 1990.
9. 홍승기·윤영선. 대학생생활 소프트웨어, 서울: 도서출판 일빛. 1990.
10. 황정규 외 4인. 청소년 문화의 변천과정, 정신문화연구원. 1992.